

## 하나님의 종 언더우드언더우드 선교사님 일대기

### 1. 서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막 10:45)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10)

한국교회사에서, 우리가 그 생애와 업적을 알고 연구하고 기억해야 할 인물을 몇 사람 택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를 가장 먼저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한국의 복음화와 한국을 현대화하는데 기초를 놓은 사람이며,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제물포에 발을 디딘 후 30년 동안 그의 헌신적 선교사역을 통해 그는 한국에 개신교회를 개척하였다. 그가 개척한 교회와 번역한 신구약성경, 설립한 병원과 대학, 출간한 신문 등은 모두 한국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로, 그의 신실한 선교사역을 통하여 한국은 모든 분야에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한국 현대 풍요를 가져온 원동력인 언더우드를 알아야 우리는 미래를 바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위대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조명하는 것이 가장 그를 포괄적으로 바로 알아가는 길일까? 30년 그의 삶을 크게 세 시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본론: 유년기 (1-12세), 청년기 (13세-26세), 선교사역기 (26세-56세)

#### 1). 유년시절 (1세~12세)

언더우드가 태어났던 1859년에서 그가 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하여 영국을 떠났던 1872년까지,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시대로, 세계가 영국깃발로 덮였던 때였다. 영국 전성기에 런던에서 자랐던 그의 가문의 신앙과 가계, 가업, 교회활동, 유아기 신앙교육, 그에게 신앙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 John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의 아버지의 친구로는, 고아의 아버지요, 세계선교 후원자로 유명한 기도의 용사 죠지 물러, 노예해방을 가져온 윌버 포스등 당대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John은 잉크를 발명하여,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 공으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았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누렸던 사업가였다.

신앙이 독실한 가정에서 자라났던 언더우드는 4세 때 이미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그가 일찍 세계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증조부 와우 목사님의 영향이 컸다 (Alexander Waugh). 와우 목사님은 당시 런던선교회의 총무로 세계선교사들을 인선하고 파송 하는 일을 30여 년 가까이 하면서, 교회 일치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그러한 영향으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늘 세계를 바라보며 언더우드는 자라났다.

어머니를 6세 때 여의고, 10세 때 언더우드는 그의 형 프레드와 함께 불란서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언더우드는 불란서 기숙학교의 귀족적 분위기를 2년 안에 떠나게 되었다. 그 후 14년간 언더우드는 혹독한 가난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의 부인이 쓴 전기 (L.H. 언더우드지음. 이 만열 옮김.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기독교문사, 1993)에는 언더우드가 어떻게 성경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볼 수 있는 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형 프레드와 언더우드가 불란서기숙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이 모두 그냥 잠을 자는데, 언더우드형제는 저녁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외운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처음에 이런 행동을 보면서 불란서기숙학교 학생들은 그들을 비웃고 야유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실함과 친절함에 친구들이 점차 감동하여 그들의 저녁기도를 따라 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프레드 형은 몸이 약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때 그는 동생 언더우드에게 자기의 중요한 소원이 있는데 들어달라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19편을 언더우드가 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더우드는 그 긴 시편을 임종하는 형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 형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소망으로 다 외워 형을 기쁘게 하였다. 이 두 가지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언더우드 가문의 경건한 자녀교육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언더우드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갔다 와서 오후에는 말씀묵상으로 경건하게 보내며, 늘 말씀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다.

동업자가 사기를 쳐서 부도가 났을 때, 언어우드선교사의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하여 조금도 원한을 품지 말자고 가족들을 독려하고, 새 삶의 터전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단행하였다.

## 2) 청년기 (13세~25세)

13세의 언더우드가 미국에 이민갔던 1872년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 남북전쟁으로 찢어진 상처들을 깎는데 D.L. 무디의 부흥운동은 크게 기여하였다. 무디는 미국 전역에서 부흥회를 통하여, 청년들을 복음신앙으로 이끌며, 또 YMCA운동을 통해서 경건한 미국 청년 문화를 선도하였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선교지로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었고, 미국에는 제2각성의 여파로 성령의 크신 은혜가 전국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 이민생활은 고된 바닥 생활이었다. 농장 일에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와 형이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동안, 언더우드 만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뉴저지 덜함의 회중교회에 언더우드 가정은 등록교인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이 교회의 맥번 목사님으로부터 언더우드는 무료로 헬라어와 라틴어를 배우며, 대학 예비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1876년 언더우드는 뉴욕대학에 입학하고도 점심을 굶으며 허기진 배로 수 십 킬로를 걸어 통학하며 공부하였다. 대학 2학년이 되던 20세에 그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뉴욕대학을 졸업할 때 우등생으로 답사를 했던 그가 1880년 뉴브런즈윅 신학교를 가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화란개혁신학교가 등록금과 기숙사비 일체를 무료로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름방학동안에는 책 외판 사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여 생활비를 벌었다.

신학교 (화란개혁신학교) 학기 중 그 도시에서 열렸던 부흥회와 구세군 행사 등, 은혜로운 자리에 언더우드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고, 얼마 후부터 설교자로 여러 교회에 초빙 받기 시작하였다. 언더우드는 신학교공부를 하면서 인도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그 곳 선교에 필요한 간단한 의료기술도 공부하였다. 어느 날, 신학생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만주의 존 로스 선교사가 보낸 한국 선교 보고를 접하게 되었다. 내용인즉, 1,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이제 막 미국 등 외국에 문을 열어 은둔국가 이미지를 고치게 된 한국에 나갈 선교사가 없느냐고 간절히 애타게 부르는 도전을 듣게 된 것이다. 이 부르심에 감동하여, 언더우드는 신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한국에 꼭 선교사로 나가라고 간곡히 부탁하기 시작하였다. 친구들 속에 한국에 갈 선교사를 한 명도 찾지 못하자 그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까운 교회에서 목회자로 초대를 받아 선교지에 가기까지 한정적으로 시무하고 있을 때, 언더우드는 자신이 인도가 아니라 한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뉴욕에 있던 장로교 선교부 본부로 가서 자신을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주기를 간절히 부탁했다. 그 때

뉴욕 장로회 선교본부에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기금이 전혀 없었다. 한국은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서양인들을 많이 죽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망과 좌절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 3) 선교사역기 (26세~56세)

#### (1) 한국 개신교 첫 선교사역 (1885-1895)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으나, 선교 후원금이 없어 못 떠나고 있던 언더우드는 어느날, 미국 동부의 한 교회에 목회자로 초빙을 받게 되었다. 그에게는 한국선교의 길은 열리지 않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길만 열린 듯 보였다. 한국선교의 문이 열리기까지 잠시 초빙 받은 미국교회에서 가려고 취임하겠다는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막 넣으려던 순간이었다.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그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느냐?”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언더우드는 자신이 한국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떠올리면서, 취임 승락서를 우편함에 넣는 대신, 곧장 장로교 선교회 본부로 발을 옮겼다. 선교회 본부에 들어갔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은 새로 부임한 선교회총무 엘링우드였다. 언더우드는 새 총무에게 다시 질문했다.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기금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말이다. 그 때, 엘링우드 총무는 기뻐하면서 몇 일 전, 한국선교에 써달라고 5,000불이 도착했음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선교회 이사회를 통해서 언더우드의 한국 선교사 파송 안이 통과되면 바로 한국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축하해 주었다. 그 말 대로, 몇 일 지나지 않아서, 그는 한국 파송 선교사로 임명 받고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한국에 가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배에 승선했을 때 그 배에는 아펜젤러(Apenzeller)가 신혼의 신부와 함께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승선했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언더우드는 갑신정변 후 일본에 망명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수정을 만나, 그에게서 일본에 머문 3개월동안 한국말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번역판으로 나온 마가복음서를 입수하게 되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가 도착하였다. 당시 미국 공사였던 푸트(Foote)는 한국의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임신 중이던 아펜젤러부인의 입국을 반대했다. 그래서 아펜젤러부부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언더우드 만 입국하여 서울로 향했다.

당시 한국에는 알렌(Allen)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뿐, 한국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는 한 명도 아직 없었다. 미국 공사 푸트는 갑신정변 직후 개화파가 쫓겨나고, 수구파가 조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일절 선교하지 말도록 시달렸다. 갑신정변 주역 김옥균과 다른 개화파의 칼에 맞아 민영익은 죽음에 이르렀으나 알렌이 치료하여 살아났다. 이 사건으로 민비와 왕실의 신뢰를 얻게 되자, 개신교 선교 문이 크게 열렸다.

한편 뒤늦게 입국한 아펜젤러는 감리교 첫 선교사로, 정동교회를 개척하고 배재학당을 세웠다. 또 그를 뒤이어 한국 땅을 밟은 스크랜튼(Scranton)은 동대문에 병원(이화여대 부속병원 전신)을 세웠고 그와 함께 한국에 선교를 도우러 왔던 그 어머니 스크랜튼 여사는 고아 한 명을 가르치면서 이화학당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이화여중고, 예원, 이화여대의 전신이다.

푸트 공사의 관찰과 달리, 복잡한 정치상황 속에서, 언더우드는 한국사회가 복음전도에 열렸고, 무르익었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신앙에 반응함을 보고 한 시라도 놓칠 새라 초를 다투면서 노방전도, 일대일전도, 내륙지방 방문 전도 등 과감한 전도사역을 펼쳐 나갔다.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한 언더우드의 사역은 사사건건 알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선배로서 알렌은 아직 한국의 선교는 외국인들 속에서만 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언더우드가 따라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알렌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자 언더우드는 선교본부에 장로교 선교사로서 사임의사를 표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갈등은 알렌이 고종의 특명을 받고 미국공사로 발령받아 그가 한국을 떠남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김인수 교수편저, *언더우드목사의 선교편지, 1885-1916*.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2002). 심한 갈등으로 고통 하던 언더우드가 한숨을 돌리게 되었을 때, 알렌 후임으로 부임한 헤론(Heron)을 언더우드는 맞이하게 되었다. 헤론은 의료선교사였던 알렌과 같이 선교회의 기획, 예산 모든 것을 단독으로 시종일관 처리해 나가려고 하였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적 환경에서 자랐고, 또 개척선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교육, 교회건축, 성경 번역 등 수많은 계획을 감당하고 있었던 언더우드에게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는 상황이었다. 언더우드는 헤론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반대하여 맞섰고, 또 본부에 갈등이 심하니까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누차 편지로 알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론이 질병으로 사역 중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언더우드는 그의 장례 및 장지까지 마련하면서 동료선교사에 대하여 최선의 예우를 다하였다. 서울 장안에 장지를 주지 않으려는 정부에 계속 탄원하여 마침내 양화진을 선교사 묘역으로 확보 하게 되었다.

독신으로 첫 개신교 선교사로 한국에 온 언더우드에게 처음 주어진 과제 한 가지는 어린 고아 김규식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 어린 아이는 양반의 자제이나, 정쟁으로 아버지가 강원도로 귀양 가자 친척들이 궁핍하여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혼자 벽

지를 뜯어 먹으며 굶어 죽어 가던 중 언더우드에게 발견되었다. 이 어린아이를 살리고자 그가 시작하였던 고아원이 점점 자라서 경신학원으로 발전하였다. 김규식은 언더우드가 사랑하는 수제자로 자라서, 미국 유학 후에 언더우드를 도와서 교회개척, 교육사업에 힘썼고 해방 후 이승만대통령과함께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노력한 대표적 정치가가 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첫 세례를 준 것과 릴리아스 호튼(Lilias Horton) 양과 결혼한 것이었다. 7세 연상이던 릴리아스 호튼은 민비의 시의로 파견된 의료선교사였다. 그들은 신혼여행으로 이북지역을 3개월간 다니며 내륙지방 전도를 단행했다. 그 기간의 모험과 도적떼를 만났던 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에 열려 있어 많은 전도의 수확을 거둔 일, 또 압록강을 건너 만주 땅에서 세례를 베푼 일등은 그 부인이 쓴 전기에 자세하고 흥미롭게 나온다. 언더우드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선교에 임하여, 189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새문안 교회와 경신학원을 설립했고, 성경번역에 착수하였다.

그 후 1889년 막 태어난 아들, 원 한경과 함께 언더우드 부부는 안식년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를 초청하는 교회마다 가서 그는 한국선교를 위한 일군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던 중,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하여, 언더우드가 선교보고를 나누게 되었을 때, 토론토대학 의과대학 교수였던 에비슨 (Oliver R. Avison)이 크게 감명을 받아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나갈 의사를 밝혔다. 에비슨의 결정에 그의 부인도 기쁘게 동의하였다. 세 자녀와 만삭된 아내와 함께 그는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였고, 부산에서 넷째 아기가 태어났다. 에비슨을 파송한 선교단체는 토론토 기독교학생회였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금주서약을 한 독실한 학생들의 모임으로 이 선교단체는 후에 평양대부흥의 도화선이 된 하디를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에비슨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다. 도착하자 바로 서울로 달려가 진료소를 개설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 그렇게 되자, 한국 조정에서는 “서양사람들에게 가면 살 수 있다“는 벽보를 붙였다. 서울에서는 시체가 줄을 이어 나가고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아픈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병에 전염될까 무서워했고, 심지어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도 많이 거리에 갖다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 와중에 에비슨은 환자들을 찾아 내어 병을 고쳐주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 내었다.

언더우드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고종과 민비와 교체이다. 부인 릴리아스 호튼이 민비의 시의로 섬기던 중 결혼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고종과 민비는 언더우드를 친구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 고종은 언더우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민비는 언더우드의 교육에 대한 구상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당

시 조정의 모든 대신들 자녀들을 교육시킬 육영사업을 언더우드에게 시작하도록 권하고 그 기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1895년 고종 32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민비가 일제의 칼에 시해됨으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고종은 이 사건으로 너무도 큰 두려움에 잡혀, 언더우드와 에비슨이 매일 밤 그의 옆에 있어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 언더우드는 고종의 신실한 친구로 가장 어려울 때 옆에서 그를 지켜 주었다. 동시에 그는 정교분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켜 나갔다. 고종이 자기와 대신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으니 미국 군대를 불러서 일본을 무찔러 달라고 부탁했을 때, 언더우드는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온 사람이므로 국제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음을 밝혀 성경에 나온 정교분리정신을 한국의 조정에 보여주었다.

이관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에 힘을 입어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을 때도 언더우드는 그 일에 관여치 않았다. 갑신정변 (1884) 직후 그가 한국에 왔고, 그 후, 동학란과 갑오경장 (1895), 노일전쟁, 을사보호조약 (1904)등으로 한국의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던 한복판에서 언더우드는 항상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오직 한 가지 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전념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설 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은 따라올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마태 6:33). 이와 같은 언더우드는 칼빈이 기독교강요 제 4 권에서 잘 보여준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좇아서, 교회는 정치를 간섭해서 안되고, 정치는 교회를 간섭해서 안 된다는 성경에 입각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바로 인식하고 실천한 것이었다.

한편 언더우드는 한국에 첫 교회 새문안 교회를 1887년 시작하였다. 만주선교사 존 로스목사님을 모시고 첫 예배를 드리며 두 명의 장로를 세우며, 세 명에게 세례를 베풀어 창립예배를 드렸다. 3자 법칙에 의거하여 한국 교회건축비를 대주는 일을 언더우드는 금하였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하며, 각자 힘담는 대로 건축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새문안 교회 건축에 드는 돈이 당시 교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 심히 어려워하였을 때, 교인들이 전염병 퇴치에 기여한 공로로 새문안 교회 교인들에게 고종이 상금을 하사하였다. 이 상금으로 교회건축은 신속하게 완성되었고, 서울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 입당하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서 한국 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자력전도와 교회의 자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2) 언더우드의 사역 확장기 (1896-1906)

두 번째 선교사역기간은 선교 확장기라고 부를 수 있다. 활발한 선교활동으로 언더

우드는 성경번역, 교회개척, 사경회, 주일학교대회, 선교사훈련, 선교지 분할, 친송가 출판, 신문발행에 힘썼다. 그 결과, 미션학교가 증가하였고, 선교법칙 3자 법칙이 실시되었다. 언더우드는 유럽과 미국 방문 중 선교보고를 통해 많은 교파와 여러 나라 교회가 한국선교에 동참하게 만들어 큰 선교회가 한국에 조직되었고, 그 선교회 대표로 연합사업에 힘썼다.

언더우드는 이 시기에 성경번역에 더욱 힘썼다. 이는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하여 1881년부터 출판했기 시작했던 신약성경이 당시 조선 북부지방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나, 서북사투리가 너무 심하여 서울에서 표준성경으로 쓰이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구약 성경 전체 번역은 언더우드가 완성하였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서로 연합사업에 힘썼는데, 특히 성경번역에 힘을 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번역을 위해 배로 목포를 향하여 가던 중, 아펜젤러가 타고 있던 배가 뒤집히게 되었다. 어린 소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소녀를 살려낸 후 아펜젤러는 급류에 휘말려 익사하였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말 씬을 아펜젤러는 살아서도 죽을 때에도 실천함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선교사의 영원한 귀감이 되었다. 성경번역사업은 아펜젤러 사후 레이놀즈 등 선교사의 협력으로 계속되어다.

이 시기에 옥중의 이승만을 전도하는 일에 아펜젤러를 도와 이승만 구명 운동에 언더우드가 매우 힘썼다. 언더우드는 이승만을 출옥하도록 돕기 위하여 고종과 기타 조정의 인물들에게 끈질기게 탄원하였다. 그 결과 이승만은 5년 6개월의 옥중생활을 마치고 1904년 출옥하였다 (참조: 유 영익저, *젊은 날의 이승만*, 연세대학교 출판부). 그는 이씨 조선왕가 후예로 어릴 적부터 천재성이 뛰어나 모든 한학을 10세 이전에 이미 통달하고,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아펜젤러가 세운 감리교선교회의 배재 학당에 들어가 뛰어난 재능이 인정되어 재학 중 영어조교로 활동하였다. 이승만은 자신이 왕가 후손으로 고종의 무능함을 한탄하며, 강화도령 철종을 왕으로 모시고 박영효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왕조를 세우기로 당시 개혁세력들과 합의했다. 그러나 사전에 탄로가 나서 이승만은 1898년 무기수로 투옥되었다. 옥중에 있을 동안, 이승만은 아펜젤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는 “서양의 신이라고 배척했던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자, 어둠던 감옥에 밝은 빛이 비취었고, 감옥은 복당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 후 감옥에서 이상재 등 당시 양반층 젊은 동료 죄수 40명을 전도했다. 이승만은 옥중에서 선교사님들이 차입해준 미국 대학과 대학원의 책을 많이 읽었다. 그가 옥중에서 쓴 글 중에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 설립의 중요성에 대한 논고, 신문출판을



통한 국민계몽의 중요성에 대한 글, 미국의 민주적 교육행정이 나라 발전에 끼치는 지대한 공헌에 대한 논고 등이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글은 방대한 자료를 모은 것으로, 하바드 대학의 시작과 발전에 대하여 정확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쓰고 있다. 이승만은 출옥 후, 고종의 밀사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호소하는 밀서를 가지고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귀국 후 그는 YMCA 총무로 청년들을 규합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으나, 일본총독부가 조작한 “105인사건“에 연루자로 지목되자,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국제적 역할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공부에 전념하여, 워싱턴 조지 타운 대학 학사 (1907), 하바드대학원 석사 (1908),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1910)을 단시간에 마치는 천재성을 보였다. 1910년 가을 그가 귀국할 때 한국은 국가 정체성을 잃어 버린 뒤였다. 그 후, 그는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외교노력을 경주했고, 하와이와 미국본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오가며 한국사람들을 규합하는 노력을 1945년까지 계속하였다.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되고 현재까지 발전한 데는 이승만의 각고의 노고에 힘입은 바 크다. 장기집권과 하야라는 정권말기의 오점으로,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너무 과장된 면이 적지 않다. 선교사의 헌신적 전도와 후원 아래 이승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한국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일념으로 평생을 살았다. 인간을 존중하는 민주적 국가의 선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평생 이승만이 달려가도록 만든 것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해 나타낸 하나님의 큰 섭리였음을 후대들은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완숙기 (1907-1916)

언더우드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1911년에 있었던 신 구약 성경번역완수 및 성경 출판이다. 성경번역과 성경출판, 그리고 그 반포는 한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나라를 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새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새 나라에 대한 밝은 비전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정책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다. 그러나 이기풍, 주기철, 손양원 등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면서 오히려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 갔다. 하나님께서 막 시작된 한국교회에 일본의 압제를 통해 불 같은 연단을 받게 하심은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냐하면, 그 결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가게 되

었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을 가지고 교회마다 열렸던 사경회는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밑 걸음이 되었다.

1907년에 언더우드와 사무엘 마켓은 장로교신학교가 배출한 첫 7명의 목사 중 한 명이었던 이기풍목사를 첫 해외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하였다. 한국교회는 시작부터 선교를 중요한 사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말씀과 교회개적으로 잘 훈련한 결과였다.

언더우드는 제물포에 도착한 그 때부터 이미 한국에 대학교를 세워 청년들을 일군으로 만들어 세계로 내어보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 선교하면서 그 중요성을 확신하였다. 한편 서울에 대학교 설립을 제안한 언더우드에게 대하여, 평양주재 선교사들과 대다수의 당시 주한 선교사들은 반대했다. 이유인즉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 대학교가 하나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선교사들의 주장을 언더우드는 본부에 보내는 편지에서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평양주재 선교사들과 뉴욕 선교본부는 그의 말에 수긍할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언더우드는 그의 확신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편지나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여 서울에 대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동료선교사들과 미국 뉴욕 장로회 선교회 본부에 인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수년간 끈질기게 설득하여 마침내 선교부가 서울에도 대학을 허락하겠다고 1914년 허락하여 총독부에 대학허가신청서를 내고, 공식적으로 인준 받아서, 1915년 처음으로 종로 2가 당시 YMCA 건물 이층에서 연세대학교는 처음에 Chosen Christian College 조선기독교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언더우드의 부인은 전기에서, 또 그 아들 원한경박사는 언더우드의 장례식 후 장로교본부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언더우드가 질병으로 심하게 앓게 된 데는 대학설립허가를 둘러싸고 그가 장기간 논쟁과 설득작업을 하면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선교사들과 선교본부로부터 적지 않은 오해와 비방을 감수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언더우드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일을 뚫고 나가는데 어떤 방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만약 그 때 언더우드가 서울에 대학을 지을 계획을 포기하였다면, 한국이 오늘 도달한 세계적 수준의 기독교 선교 및 기독교 교육, 의료, 문화, 정치, 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이 가능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더우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셨을 때,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지나친 과로로 언더우드는 1916년 4월 미국으로 귀국한 후, 6개월 뒤인 10월

에 소천하였다. 그가 그렇게도 돌아오기를 원했던 한국에 그가 다시 온 것은 2,000년 대 초 그가 양화진에 묻히기 위해서였다. 그의 아내와 아들 내외 옆에 그를 다시 이장하게 된 때는, 그가 소천한 지 80여년 후의 일이었다. 언더우드 가문은 지난 120년 동안 연세대학교를 헌신적으로 섬겼다. 학교의 주요한 역사적 건물을 보면 언더우드 가문에서 보내온 헌금을 기초한 것이 많이 있다. 이는 언더우드의 형, 존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를 발명 제작 판매하여 당시 가장 성공한 실업가로 갑부가 된 데도 이유가 있다. 그 형은 동생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물심양면 노력하였고, 연세대학교 첫 부지 30만평을 사도록 기꺼이 헌금하였다.

## 1. 결론

우리 한국교회와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의 뜻 깊은 업적을 어떻게 기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언더우드가 번역한 성경에 의해 발달한 한국이기에 그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업 중 하나로 아직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는 나라나 부족들을 위하여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도와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선교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결론적으로 언더우드의 업적을 요약해 보고, 그 선교의 의미, 그리고 특징, 교회사에 나타난 위인들의 공통점을 살펴 보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아 보자.

### 1) 언더우드 업적 요약

결론적으로 언더우드의 업적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첫째, 성경번역, 출판 및 배포이다. 언더우드는 한국어 성경번역을 완수하고 출판하여 배포함으로써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였다. 1885년부터 1911년까지 걸렸던 성경번역은 한국역사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포하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획기적으로 도왔기 때문이다. 또한 문맹퇴치에 번역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크게 기여하여, 미래 한국이 모든 부문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놓았다.

둘째, 교회 개척이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첫 교회 새문안 교회를 세운 것을 필두로 전국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교회가 개척되는 곳마다 미신은 물러가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놓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한국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새 하

늘과 새 땅이 임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자유민주주의사회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3자 법칙이다. 언더우드는 자치, 자력전도, 자립 (self-government, self-preaching, and self-support)을 한국교회 개척에 적용했다. 그는 이 법칙을 처음 만들었던 네비우스 선교사를 한국 선교사연합회에 강사로 초빙하여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 방법의 적절한 사용이 가져올 긍정적 결과를 확신하였다. 한국교회는 언더우드의 철두철미한 3자 법칙 적용으로, 일본, 중국과 같이 훨씬 역사가 오래 된 교회보다도 더 빨리 자립하여, 교회성장과 세계선교에 있어서 2,000년 교회사에 가장 주목할 성장과 헌신을 나타내게 되었다.

넷째, 교육사업이다. 언더우드는 일찍 한국에 첫발을 디딜 때부터 대학설립의 비전을 받았고, 서울에 대학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선교생활을 통해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그의 생각을 반대하던 당시 본부와 주한 선교부와 5년간의 긴 논쟁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여, 마침내 연세대학 설립 허가를 선교 부로부터 받았다. 그는 또한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1912년 Seoul Foreign School을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기독교학교로 미국 밖의 가장 훌륭한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언더우드가 1916년 세운 대학의 첫 이름은 조선기독교대학 (Chosen Christian College)이었다. 일제치하에서 연희전문학교, 경기전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6.25 후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합치면서 연세대학교로 명명되었다. 언더우드의 뒤를 이어 한국을 찾아온 모든 개신교선교사들은 전국에 초 중 고등학교를 세우고 평양에 대학교를 세워 한국에 현대교육의 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의료선교이다. 에비슨은 한국에서 의료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어, 세브란스장로님의 아낌없는 후원에 힘입어, 병원과 의과대학을 창설하여 한국 현대 의학의 효시가 되었다. 그를 본받아 뒤이어 찾아온 의료선교사들은 평양,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도시마다 선교병원과 의과대학을 세워 한국 현대의료발전과 한국교회 의료선교의 틀을 놓았다.

여섯째, 출판사업이다.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한국에 시작한 출판은 영한사전, 한영사전, 각종 기독교서적 번역 및 출판, 그리고 찬송가, 신문간행이었다. 또한 각종 중고등,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과서를 번역 출판했다. 언더우드를 뒤이어 한국교회는 출판사업에 주력하여 현대의 큰 교육의 발전을 이루었다.

일곱째, 기독교 가정생활의 모범이다. 그의 결혼생활은 부인의 증거를 통해 보여주듯 친절과 사랑, 신의와 성실로 점철되었다. 그의 아들, 원한경, 손자, 원일한, 증손자, 원한광, 4대가 한국교회와 연세대학교를 섬기면서 본을 보였다. 또한 언더우드는 첫

서양식 건축물로 자기 집을 손수 지어서, 위생적 중앙난방, 입식 부엌, 양식 화장실 등을 만들고 각종모임을 통하여 한국 사람들에게 위생적 가정환경을 계몽하였다. 이로써 언더우드는 현대 건축을 한국에 소개하는 최초의 서양인이 되었다. 특히 절제운동에 힘써서 에비슨과 함께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술과 담배를 정책적으로 금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생활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귀한 틀을 마련했다.

## 2) 언더우드 선교사의 네 가지 성격적 특징

###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기초한 국제적 세계관

언더우드의 성격에 나타나는 첫번째 특징은 그의 세계관이 매우 글로벌하다는 것이다. 한국을 선교하면서, 그의 시선은 항상 중국,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는 그가 안식년에 귀국할 때 미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국과 홍해를 경유하여 유럽을 거쳐 가는 경우에서도 잘 나타난다. 처음 한국에 선교하러 올 때에도 영국에 가서 친척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다. 그가 이렇게 세계를 품에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성경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에서 왔다. “모든 족속을 제자삼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외적으로는 그가 자라난 빅토리아 여왕 치하의 시대적 배경에 있다.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역사에서 가장 나라가 번성했던 시대를 다스렸다. 1800년대 영국은 세계를 석권하는 대영제국으로 그 국기에 해가 지는 날이 없었다. 인도, 캐나다, 오스트레리아, 남아프리카, 중국, 아프리카, 남미 등의 요지마다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 풍요로움 가운데 중국에는 19세기 중반 아편전쟁으로 영국은 오명을 남겼고, 1차 대전 이후, 그 모든 속국은 차차 독립을 시작하여, 2차 대전 후 다 독립하게 되었다. 언더우드가 런던에서 자라던 그 시기는 바로 빅토리아 여왕의 전성기로, 그 시대에 온 세계는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국의 지도층이 이렇게 온 세계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영국 국민에게 세계는 바로 그들의 무대였다. 이렇게 세계를 조명하는 관점을 언더우드도 가질 수 있었음은 그가 1859년에 태어나서 1872년 13세에 미국으로 이민 갈 때까지 빅토리아 여왕시대 세계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어린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가 Royal Asiatic Society 한국지부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한국학의 최초의 좋은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것도 국제적인 그의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적 성과였다.

한편,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언더우드는 분명하게 정교분리의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였

다. 고종황제와 신실한 친구관계를 유지했으나, 고종황제가 자신이 세례를 받겠으니 미국 협조를 구해달라고 제안을 했을 때, 언더우드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동시에 언더우드와 그의 부인은 고종황제와 명성황후가 일제침략의 어려움으로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끝까지 가장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갑오경장, 동학란,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병의 정치적 혼란가운데 시종 언더우드는 한국백성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랑으로 한국 조정과 사회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었다.

언더우드가 가졌던 국제적 세계관은 역사적 환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이해, 곧 성경적 세계관에서 왔다 (계시록 11:15).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며 그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열심을 다해 섬긴 것이다. 곧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고 믿으며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한 것이다.

## (2)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심: 교회연합 정신

언더우드의 두번째 성격적 특징은 교회연합 정신이다. 그는 교회연합을 선교지에 실현하려고 선교협의회, 선교지 분할, 교회협의회, 성서공회, 찬송가공회 등, 항상 교회연합정신에 입각하여 선교하며, 교육하며, 출판하며, 배포하는 일에 힘썼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손을 댄 모든 일에 그는 사랑과 인내, 근면과 성실, 모든 선함으로 행하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끝까지 연합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그가 세운 새문안교회와 기독교서회, 세브란스병원은 물론이고, 그의 뜻을 받들어 세운 연세대학교와 그 속의 연합 신학원은 항상 교회연합 정신에 입각하여 이사진과 학과과정이 구성되었다. 특별히 그가 창안했던 선교회의 한국 분할선교정책은 선교의 중복과 선교회간의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선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며, 선교회 사이에 건전한 협력을 이끌어 냈다.

이렇게 언더우드가 교회연합정신에 뛰어날 수 있었음은 그의 외증조부, 와우 박사의 영향에 힘입은 바가 컸다. 와우 박사는 London Missionary Society 창립멤버 중 한 사람으로 33년간 그 선교회에 봉사하면서, 28년간 선교사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그 선교회를 교회연합체로 조화롭게 이끌어 많은 존경을 받았다. 언더우드 소천 후 일년 안에 언더우드의 전기를 쓴 그의 부인 릴리아스 호튼은 언더우드가 외증조부의 교회연합정신을 매우 정확하게 물려받은 것을 보면서, 영적 유전법칙에 경이로움을 표한다 (Underwood of Korea, 16-17쪽). 언더우드 부인은 그 전기에서 언더우드는 사랑과 믿음, 용기와 긍휼의 사람이었음을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하는 가운데 생

생하게 보여준다.

언더우드에게 나타난 이러한 사랑에 기초한 일치정신은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7:21에서 온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되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흠어진 공동체가 하나되어 머리 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언더우드는 바른 그리스도 공동체의 존재양식으로 이해하고 믿고 추구하였다.

### (3) 그리스도를 믿는 불굴의 믿음: 개척정신

언더우드의 세번째 성격적 특징은 투철한 개척정신이다. 그는 한국의 내륙으로 들어간 첫 외국인으로, 아내와 신혼여행으로 북한지역 전도를 했다. 언더우드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여, 놀라운 개척정신을 발휘했다. 그는 일생동안 매우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를 본받아 용기 있는 개척정신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용기는 언더우드가 13세 때 이민 와서 정착하여 살면서 적응해갔던 당시 미국에 팽배했던 개척정신에서 온 것이다. 당시 미국은 신앙적으로 제 2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다. 동시에 남북전쟁 후 연방주의자들이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변방의 여러 주들을 하나씩 병합시켜 나가고 있었다.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 되었으나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로 미국은 어느 때보다 용기 있는 개척정신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국을 확장하는 시기였다. 십대의 나이로 이민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더우드는 미국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의 의로운 용기와 서부로 계속 전진하는 개척 정신을 본받지 않을 수 없었다. 언더우드에게 나타나는 이 불굴의 믿음은 구약과 신약성경의 인물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기본자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호수아의 용기, 다윗의 지략, 바울의 섬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불굴의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여호수아 1:9). 성경적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남북전쟁에서 승리요, 언더우드의 선교적 삶이었다.

### (4)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 청교도 정신

언더우드의 네번째 성경적 특징은 그의 근면함과 철저한 책임감으로 표출된 그의 청교도 정신이다. 청교도정신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와서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들의 신앙과 성경적 삶의 자세에서 웅변적으로 나타난 실천적 기독교 신앙정신이다. 언더우드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근면함과 책임감으로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며, 선교사들을 양성하면서, 모든 일에 치밀하고 철저한 성경적 도덕성에 기초한 책임감을 평생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그는 그가 시작한 모든 일을 끝까지 완수하였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맡은 일을 완수하는데 뛰어났던 그의 사역자세는 그가 경험했던 혹독한 가난의 훈련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에 와서 모든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언더우드는 그의 사역 마지막 순간까지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또 책임감 있게, 항상 유머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언더우드에게 가난의 훈련이 없었다면 언더우드가 한국선교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렇게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을까? 청교도정신이 보여주는 언더우드의 가장 큰 장점인 일에 대한 성실함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에 기초하고 있다. 바울은 그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도직에 충성하여 부르심 받은 다메섹 도상의 회심 후, 순교할 때까지 전적으로 선교에 헌신하였다. 언더우드의 그 철저한 일에 대한 부지런함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 것이다. (빌 3:13-14)

### 3) 언더우드와 교회사 위인들과 공통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 6:33)

언더우드는 30년 한국선교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 현대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견실히 놓았다. 언더우드처럼 30년간 사역을 통해 역사를 바꾼 인물들이 교회사에는 적지 않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30여년이라는 전생애를 바침으로 이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후 32년부터 그가 로마 네로 치하에서 순교한 주후 64-5년까지 30년간 경주자와 같이 이방선교에 전적으로 힘써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지중해 전역의 선교를 완수하였다. 그뿐 아니라 스페인까지 선교하여, 당시 알고 있던 모든 세계가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방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이방선교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그의 이방선교열정은 이방인의 총만한 숫자가 차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계시로 받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1:25-26). 그는



그의 사역과 서신들을 통하여 당시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의 무법주의라는 좌우로 치우친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쇄하고 바른 복음, 곧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인류역사 속에 영원히 빛나는 진리가 되도록 밝히 증거하였다.

존 칼빈은 1536년 기독교강요를 처음 발행했고 23년 후 1559년 마지막 판을 출판하였다. 그는 1535년 회심 후 1565년 임종할 때까지 30년간, 잠시 정적들에 의해 스트라스부르그로 쫓겨났던 3년을 제외하면 그 모든 생애를 제네바에서 불철주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했다. 그의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당시 유럽은 바른 복음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23년간 심혈을 기울여 증보한 기독교강요는 마지막 판과 함께 그 후 지난 450년이 넘도록 온 세계 교회, 사회, 정치,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저서가 되었다.

마틴 루터는 이미 1517년 중세교회가 가르치던 교황무오설, 미사, 고행등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면죄부, 사제독신주의등 95개조항의 반성경적 오류를 지적하여 뷔템베르크 성당 문에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의 불을 당겼다. 칼빈은 그 뒤를 이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개혁신앙의 진수를 정의하고 정리함으로 종교개혁을 완수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그의 한 평생 말씀에 대한 충성된 사역의 결과, 오대양 육대주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개신교회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가 주창한 교회의 장로제도를 통해서 현대 민주자본주의 국가들이 정교분리의 법칙 아래 일어나게 되었다.

바울과 칼빈의 30년 사역은 인류역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통해 인류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우리는 주후 312년 밀라노칙령을 통해 로마제국을 기독교화했던 콘스탄틴대제와, 회심하여 서구 역사와 신학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의 생애, 그리고 9세기 영국을 복음신앙으로 통일했던 알프레드 대왕에게서도 30 여 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언더우드님의 삶의 연구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적용할 일이 남아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려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완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묻고 그 답을 찾아 믿음으로 순종하자.

#### 4) 우리가 나아갈 길

2004년 11월 1일자 뉴욕타임스는 톱뉴스 제목으로“어려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다루었다. 내용인즉,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모슬렘 권에 한국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어 놀랍다는 것이다. 그 기사는 또한 한국교회가 세계선교현장에 1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세계선교는 한국교회의 관심사를 넘어서서, 세계의 정치, 문화,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새로운 국제 정치 및 역사 속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이 기사는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케 하는 한국교회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언더우드의 순교적 헌신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다.

오늘날 세계선교는 2,000년 교회역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당시 변방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세계선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주후 312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즈음 로마제국 전역은 이미 복음화되었다. 이 사실은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공인 바로 직전 기독교에 대한 로마황제들의 박해가 로마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음에서 엿볼 수 있다. 5세기에 이르러 어거스틴 신부가 복음을 들고 영국으로 나갈 때에야 비로소 대서양 연안국가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영국은 급속도로 복음화되어, 9세기에는 경건한 알프레드 대왕이 성경연구, 교육, 봉사를 실천하여 바이킹의 발굽아래 풍전등화와 같던 영국을 통일함으로 대서양을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영국과 유럽지역 복음화로, 종교개혁 이후 서구교회는 세계선교에서 중심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후 18세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인디안 선교는 그가 남긴 일기와 함께 큰 감동을 끼쳤다. 윌리엄 캐리의 인도선교를 필두로, 19세기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아프리카선교, 그리고 아도니람 젯슨의 아시아선교로 이어지면서, 복음선교는 서쪽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일어난 제 2 각성 운동을 이끌던 무디의 부흥운동은 미국의 청년들과 영국의 청년들을 선교지로 줄줄이 나가도록 불러 일으켰고, 그 일환으로 아시아에 선교사로 나온 대표적 선교사가 언더우드이다. 언더우드의 선교활동은 미국과 다른 서구지역의 많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켜서, 한국에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다. 언더우드의 선교보고를 듣고 감동받아 한국선교를 지원한 대표적인 선교사가 세브란스병원과 의과대학을 동시에 설립한 올리버 에비슨 의료 선교사이다.

20세기 말부터 세계선교는 아시아교회 중심의 선교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이는

복음의 서진의 당연한 결과이다. 앞으로 세계선교는 한국과 중국, 아시아 여러 나라 교회의 선교사들이 서구교회 선교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역 하며 지상명령을 완수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 크게 확장되어, 복음의 서진을 완성시키는 역사에 온 세계가 주목하는 이 때, 한국교회는 21세기 한국 교회에 주어진 세계선교의 중심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학적이고 선교 인류학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30년 언더우드 사역이 한국교회와 한국 현대사회 발전의 틀을 놓았기에 그를 빼놓고 한국교회와 한국현대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인들, 심지어 역사가들, 국학연구가들도 언더우드를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선교의 흐름을 바르게 파악하고 세계선교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한국교회와 선교의 기초를 놓은 언더우드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의 성공적 선교사역을 분석하여 본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더우드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끝으로, 탈레반에 의해 피납된 한국의 단기선교사들 중 2명이 순교하였고, 남은 생명들도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웠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2010년 1월 2일에는 연세대학교 08학번인 김성현군과 성균관대 정요한군이 교회 대학부 학생들과 말레이시아 단기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해변에서 함께 갔던 여학생들 3명을 살려내고 자신들은 물에 익사하는 슬픈 일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바치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첫 순교자 토마스선교사님과 한국교회 역사에 빛나는 주기철목사님과 같이 우리도 순교 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떤 위험 앞에서도 꺾이지 않아갈 수 있는 믿음을 길러야 하겠다.

틸리아스 호튼 언더우드저, 이만열 옮김.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개신교선교사*. 기독교문사.

안영로지음,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쿤란출판사. 2002.

유영익저, *젊은 날의 이승만*.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 광린 저,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우리 나라 근대화와 선교활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주광조저, *죽음을 이겨낸 영원한 삶 (More Than Conquerors)*. JCR.2007.